

충남연구원 및 중부미래정책연구원, 한국통일교육학회 주최
2019년 5월5일 어린이날 기념 학술 포럼

남북한 어린이의 삶의 조명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길 찾기

일 시 : 2019. 5. 2.(목) 14:00 ~ 17:00

장 소 : 공주교대 입지관 시청각실

주 최 : 충남연구원, 중부미래정책연구원

주 관 : 한국통일교육학회

후 원 : 중부미래포럼

세미나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20	20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박찬석 회장(한국통일교육학회) ▪ 환영사 : 안병근 총장(공주교육대학교) 윤항 원장(충남연구원) 김규선 원장(중부미래정책연구원) ▪ 축 사 : 나소열 정무부지사(충청남도 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김원미 (중부 미래 포럼, 선문대)
14:20~15:20	60분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1(20분) - 남북 어린이의 일상적 삶 인식 ▪ 발표2(20분) - 남북 어린이 활동을 통한 통일미래 만들기 ▪ 발표3(20분) - 충남 아동 복지에 관한 현안과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민수 교수 (광주대학교) • 백은영 교수 (공주교육대학교) • 전윤선 교수 (목원대학교)
15:20~15:30	10분	휴식	
15:40~16:40	60분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자(6인) - 刘婷婷(黑龙江省八达路桥建设有限公司), 통역(袁帅, 黑龙江贯通律师事务所) - 성태규 박사(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종선 교수(백석대학교) - 김용현 박사(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원미 교수(선문대학교) - 윤필희 사무총장(중부미래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이혜경 교수 (공주교육대학교)
16:40~16:50	10분	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윤필희 (중부미래포럼, 사무국장)

개 회 사

박 찬 석

(통일교육학회 회장,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어린이 날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21세기는 늘 힘듦이 옆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치적 발전을 이루어낸 적도 있으며 남북한의 갈등이 있었어도 반드시 극복하려는 의지를 늘 펼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힘들어도 함께 헤쳐 나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힘을 내서 자포자기만 하지 않으면 늘 기회는 상존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 많았던 어린이들이 이제 어른으로 자녀 나라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갈 힘을 갖고 미래를 대비할 때입니다. 절망스러울 때 힘을 내고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 용기를 낸다면 우리의 저출산 문제와 남북한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기회를 찾아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선조들의 패기와 시대 정신을 받들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처지를 잘 파악하고 남북 어린이들의 힘을 주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인다면, 저출산 문제도 더욱 더 기회로 삼아 나라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세미나는 매우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행사를 위해 힘써 주신 충남연구원 윤희원 원장님, 중부미래정책연구원 김규선 원장님, 우리 대학교 안병근 총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중부미래포럼을 지원하기 위해 와주신 나소열 정무 부지사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환 영 사

안 병 근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충남 연구원과 한국통일교육학회, (사)중부미래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교대 총장 안병근입니다.

먼저, 충남연구원과 한국통일교육학회 그리고 (사)중부미래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학술포럼이 우리 대학교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동 학술포럼을 참석을 위해 우리 대학을 찾아주신 나소열 충남 정무부지사님과 윤황 충남연구원장님, 김규선 포럼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충남은 그 동안 줄곧 '저출한 고령화' 문제에 주목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과정 속에서도 깊은 애정으로 자녀를 출산하시는 부모님들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이 스스로 어린이날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와 충남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주제로 공동 학술포럼을 우리 학교에서 개최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이 중요한 포럼을 개최해 주신 윤황 연구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어린이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운이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저출산과 어린이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우리 스스로 어린이를 사랑으로 대하게 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공동 학술포럼에서는 우리 조국의 분단을 극복하는 남북어린이의 삶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충남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사회와 발제 및 토론을 맡아 수고해 주실 국내의 어린이 및 저출산 문제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공동 학술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우리 대학 교수님이신 한국 통일교육학회 회장 박찬석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원하며 간단히 인사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 영 사

김 규 선 ((사) 중부미래정책연구원 원장, 선문대 교수)

남한과 북한의 유아 교육과 우리 충남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충남 연구원과 본 (사)중부미래정책연구원의 합동 세미나를 연 것을 자축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남북한의 보육과정을 인식하고 뜻 깊은 어린이날의 행사는 앞으로 우리 충남 평생 교육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사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자율성과 복종성을 함께 길러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창의적인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예의바른 어린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남북 교육계는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와 새로운 사회로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본 세미나를 충남 초등교육의 산실인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열게 해 주신 안병근 총장님과 충남 연구원 윤황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어린이 교육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주 교육대학교는 앞으로 충남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키 역할을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멋진 충남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충남도청, 충남연구원 그리고 공주교육대학교, (사) 중부미래정책연구원과 중부미래포럼 그리고 한국통일교육교육 학회가 모두 함께 나아가 국가의 숙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단초를 이 곳에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축 사

윤 황 (충남연구원 원장)

실록의 계절을 시작하는 5월 2일 한국통일교육학회의 주최로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공주교육대학교 안병근 총장님과 한국통일교육학회 박찬석 회장님께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남북한의 영유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영유아들을 국가가 성심을 다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충남도 관장하는 주무부서나 연구원을 통해 영유아교육을 위한 법적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영유아보육법과 교육부가 관장하는 유아교육법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북한의 영유아교육은 일원화된 어린이보육교육법에 의거하여 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도 중앙 정부의 교육 및 보건행정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법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이러한 국가적 시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영유아 출산 문제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0조에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보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세 미만, 만2세, 만3-5세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영유아교육은 일원화된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주교육대학교 안병근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국통일교육학회 박찬석 회장님께도 다시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우리 충남연구원과 뜻을 같이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2019년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공주교육대학교와 한국통일교육학회 등이 함께 마련한 본 학술세미나에서는 남북한의 영유아 정책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적인 더불어 삶에 대한 마음을 올립니다.

목 차

■ 주제발표

○ 발표 1:

- 남북 어린이의 일상적 삶 인식 / 최민수

○ 발표 2

- 남북 어린이 활동을 통한 통일미래 만들기 / 백은영

○ 발표 3

- 충남 아동 복지에 관한 현안과 방안 / 전윤선

■ 종합 토론

- 刘婷婷(黑龙江省八达路桥建设有限公司),
통역(袁帅, 黑龙江贯通律师事务所)
- 성태규 박사(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종선 교수(백석대학교)
- 김용현 박사(충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김원미 교수(선문대학교)
- 윤필희 사무총장(중부미래포럼)



주제 발표

남북한 어린이의 일상적인 삶

- 유아교육기관의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

최민수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들어가기

남북한의 영유아들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자라나고 있다. 영유아들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도 각기 다르다. 남한의 영유아교육을 위한 법적체계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영유아보육법과 교육부가 관장하는 유아교육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북한의 영유아교육은 일원화된 어린이보육교육법에 의거하여 중앙의 교육 및 보건행정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법을 집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0조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보육하도록 규정되어 2세미만, 만2세, 만3-5세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또한 남한의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들은 유아교육법 13조에 근거하여 유치원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하도록 규정되어 3-5세 유치원교육과정으로 통합되어 I 수준, II 수준, 공통수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7). 이원화 체계로 인하여 3-5세는 유아들이 서로 중복되고 있어 소모적 경쟁으로 많은 어려움 있어 여러 단체에서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다행히 2012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누리과정'이 제정되어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유아들을 지도하고 있다.

북한의 영유아교육은 일원화된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탁아소에는 0-3까지의 영유아들이 다니고 유치원에는 4-5세 유아들이 다닌다. 중앙의 교육 및 보건행정기관들은 어린이보육교양에 대한 유치원과 탁아소의 전반적인 사업을 조직하고(어린이보육교양법 48조), 지방정권기관은 관할 지역 안의 탁아소와 유치원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한다(어린이보육교양법, 49조). 유치원 5세의 경우에는 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이어지는 12년 의무교육체계(2013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함)에 편제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의 유치원 높은반 5세 유아들은

우리말, 셈세기 등 주요 과목에서는 교과서와 교수안이 마련되어 있다. 남한 유치원에는 교과서가 없고,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11개의 생활주제에 따라 11권으로 구성된 유치원 교사를 위한 교사지도서가 있다.

2019년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공주교육대학교와 한국통일교육학회 등이 함께 마련한 본 학술세미나에서는 ‘남북한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하여 남북한 유아교육기관의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개괄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의 6년제 초등학교와 5년제 소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0세에서부터 6세가 되기 전까지의 영아와 유아들은 하루일과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에서 온 교사가 쓴 인민학교 이야기를 통하여 북한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 남북한 유아교육기관의 하루 일과

남북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은 남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남북한 유아교육기관의 주요 하루 일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남북한의 학교 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남북한의 어린이집과 북한의 탁아소의 하루일과, 남북한의 유치원의 하루일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남북한의 학교 체계

1) 남한의 학교 체계

남한의 학교체계는 홍익이념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0-5세, 유치원 3-5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전문대학 2-3년, 대학교 4년, 석사 2-3년, 박사 2-3년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2년부터 만 5세 유아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만 3-5세 모든 유아들에게는 ‘누리과정’이라는 공통 교육과정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3-5세의 무상교육을 포함하면 사실상 12년의 의무교육에 준하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은 정확하게 9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한의 유아교육 체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2원화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1년제 보육교사교육원, 2-4년제 유아교육과, 보육과, 아동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과 등 영유아 관련학과에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규정한 51학점과 보육실습 학점을 취득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부여하고, 1년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부여한다. 유치원 교사는 2-4년제 유아교육과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교직 학점 80점이상, 전공 학점 평균 75점 이상이면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그밖에 교직과정 개설을 인가 받은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에서 정원의 10% 범위에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2) 북한의 학교 체계

북한의 학교체제는 학교 전 교육으로 탁아소 4년과 유치원 2년(낮은반 1년, 높은반 1년), 초등교육으로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고등전문학교 2~3년, 교원대학 3년, 대학교 4~6년, 준박사(석사)과정 2~3년, 박사과정(2~3년)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총 12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2013년도부터 적용되고 있음).

북한의 유아교육은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 따라 연령으로 구분하여 출생 3개월에서부터 만 3세까지는 탁아소에 다니고, 만 4세와 5세들은 유치원에 다닌다. 탁아소에서 영유아들을 지도하는 보육원은 3개월(주간) 혹은 6개월(야간, 통신교육) 과정의 보육전문학교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여 근무한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양원은 원칙적으로 3년제 교원대학에서 양성하지만 교원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한시적으로 도·시·군에서 1년제 단기양성소를 개설하여 교양원을 양성한다. 이러한 교원들은 통신체계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고 방학에 집중적으로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다.

2. 남북한의 어린이집과 탁아소

1) 남한의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반편성은 1세 미만(3-12개월, 3명당 교사 1인), 1세반(13-24개월, 5명당 교사 1인), 2세반(25-36개월, 7인당 교사 1인), 3세반(37-48개월, 15명당 교사 1인), 4세반(49-60개월, 20명당 교사 1인), 5세반(61-72개월, 20명당 교사 1인)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운영된다.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6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표준보육과정

은 2세 미만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으로 크게 3개의 보육과정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다. 2013년부터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3-5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2세 이하에만 표준보육과정이 적용된다. 만 2세 학급의 일과 구성 예는 <표 1>과 같다.

<표 1> 남한 어린이집 일과표의 예

순서	시 간	활 동 내 용
1	07:30 ~ 08:30	등원 및 맞이하기(통합보육)
2	08:30 ~ 09:00	각 학급별 입실/화장실 다녀오기, 개별적으로 조용한 놀이
3	09:00 ~ 09:30	손씻기, 아침 간식 및 간식 후 뒷정리
4	09:30 ~ 10:30	이야기 나누기, 실내 자유선택활동
5	10:30 ~ 10:40	놀잇감 정리하기, 화장실 다녀오기, 전이활동
6	10:40 ~ 11:20	대근육활동놀이(대근육실) 및 놀잇감 정리하기
7	11:20 ~ 11:30	화장실 다녀오기, 손씻기
8	11:30 ~ 12:10	점심 식사 및 식사 후 그릇 정리/조용한 놀이
9	12:10 ~ 12:40	양치 및 화장실 다녀오기/자유선택활동
10	12:40 ~ 15:00	낮잠 및 휴식
11	15:00 ~ 15:20	낮잠 깨기 및 화장실 다녀오기/자유선택활동
12	15:20 ~ 15:50	오후 간식
13	15:50 ~ 16:00	실외 놀이 준비
14	16:00 ~ 16:50	실외 자유선택활동
15	16:50 ~ 17:30	조용한 놀이/동화/개별적으로 귀가 준비 및 귀가
16	17:30 ~ 19:30	통합보육/자유선택활동/집단활동/바깥놀이

남한 어린이집의 일과는 크게 2시간 30분 이상의 영유아 주도 개별활동 중심의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1시간 이상의 대근육 활동과 실외놀이, 아침 등원 후에 제공되는 오전 간식과 오후 낮잠 후에 주어지는 오후 간식시간과 점심시간, 1-2시간 정도의 낮잠시간, 이야기 나누기, 동화 등 교사주도의 활동시간, 활동을 준비하고 이동하는 전이시간, 정리정돈 시간,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이루어지는 통합보육 시간 등으로 하루의 일과가 이루어진다. 보통 아침 통합보육 시간은 당직 교사를 정하여 여러 반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오후 늦은 시간의 통합보육 시간에는 주로 반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다른 교사들은

자기 교실을 번갈아 청소하기도 한다. 보통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구조적인 시간과 집단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나이가 어릴수록 활동에서의 개인차를 배려하여 조용한 활동 및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주어진다.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사무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위생원, 운전원 등의 교원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 북한의 탁아소

북한 탁아소의 반편성은 젓먹이반(1-6개월), 젓먹이반(7-18개월), 교양반(19-36개월), 유치원 준비반(37-48개월)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생후 1년 6개월부터는 기초적인 언어교육, 보행법, 노래, 유희 등을 통하여 규율에 대한 순종심과 집단주의 정신, 김일성을 어버이로 섬기는 정신을 주입하고 있다. 젓먹이반은 2시간 간격으로 어머니가 와서 30분간 젓을 먹고 아이들의 빨래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생모가 처리한다. 젓떼기반은 한 명의 보육원이 15-20명 정도의 영아를 돌봐야하기 때문에 돌보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주요임무는 2시간 간격으로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며 위생관리에 힘써야 한다.

교양반부터 간단한 정치사상 교양학습에 들어간다. 두 번의 새참 및 점심시간에는 벽에 걸려있는 김정일 초상화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일성 김정일 원수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라고 보육원의 말을 따라 인사한 다음 새참과 점심을 먹어야 한다. 유치원 준비반은 유치원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북한에서 하급학년은 연령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보다는 다음 단계의 학습준비가 더 우선한다. 탁아소의 운영형태는 일탁아소(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데려가는 형태), 주탁아소(월요일에 맡겼다고 토요일에 데려가는 형태), 월탁아소(1개월간 맡겨두는 형태) 등이 있다. 생후 18개월에서 3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일탁아소의 일과표의 예는 <표 2>와 같다.

<표 2> 북한 일탁아소의 일과표 예

순서	시 간	활 동 내 용
1	07:00 ~ 08:00	아동수용(집에서 아침식사)
2	08:00 ~ 08:30	유희 및 교수 활동
3	08:30 ~ 09:00	손을 씻고 식사하기
4	09:00 ~ 09:30	산책준비
5	09:30 ~ 11:00	산책하기
6	11:00 ~ 11:30	손씻기(화장실)
7	11:30 ~ 12:30	점심식사하기
8	12:30 ~ 13:00	낮잠준비
9	13:00 ~ 15:00	낮잠자기
10	15:00 ~ 15:30	손씻기(화장실)
11	15:30 ~ 16:30	식사하기
12	16:30 ~ 19:00	산책, 유희 및 교수 활동
13	19:00 ~ 19:30	귀가하기

일탁아소의 하루일과는 크게 유희 및 교수 활동, 산책하기, 식사하기, 낮잠자기, 화장실 가기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식사하기에 해당되는 내용에는 점심식사 이외에는 오전 오후에 제공되는 새참에 해당되며,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는 각 가정에서 해결하고 있다. 유희 및 교수 활동, 산책하기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루어지고 있으며, 낮잠시간은 2시간 정도 할애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교사가 주도하는 집단교육이 강조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노래와 춤이 강조되고 있다.

탁아소에는 원장, 보육원, 간호원, 서기, 회계, 요리사, 세탁인 등의 직원이 있다. 물론 작은 규모의 탁아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겸직할 수 있다. 원장은 정상적인 행정업무 이외에도 감독해야 하는 모든 직원들의 정치교육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장은 보통 7시 30분에 업무를 시작하여 저녁 7시 30분까지 일을 하고, 하루에 최소 2시간은 영유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보육원은 원장이 하는 일을 돕고 직접 영유아들을 담당하여 보호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간호원은 영유아들의 건강과 위생환경을 담당하는 역할과 대중을 조직하여 지역사회 위생문화를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모든 간호원은 하루에 2시간 정도 정치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서기와 회계원은 공동재산을 유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부의 규칙에 따라 예산을 수립해야 하며, 하루에 3시간 정도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 요리사와 세탁인은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3. 남북한의 유치원

1) 남한의 유치원

유치원은 3세반, 4세반, 5세반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2012년부터 만 5세반은 어린이집과 함께 공통으로 운영되는 '누리과정'으로 운영되었고, 2013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든 3-5세에 유아들에게 누리과정을 적용한다. 남한의 유치원은 보통 3월 2일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경에 마치고 위 학급으로 올라가거나 졸업하게 된다. 유치원의 운영시간은 반일제(3-5시간 미만으로 운영), 시간연장제(5-8시간 이만으로 운영), 종일제(8시간 이상으로 운영)로 운영된다.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귀가하는 반일제 유치원은 이제 대부분 사라졌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간단한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2-3시 정도에 끝나는 시간연장제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아들은 귀가한 후에 일부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1-2학년 정도의 종일반으로 재편성되어 운영되는 종일제 형태가 있다. 가장 보편적인 운영 형태인 시간연장제 유치원의 하루 일과 운영 예는 <표 3>과 같다.

<표 3> 남한 시간연장제 운영 유치원의 일과표 예

순서	시 간	활 동 내 용
1	08:30 ~ 09:00	등원
2	09:00 ~ 09:20	인사 나누기 및 일과계획
3	09:20 ~ 10:30	실내 자유선택활동 및 오전 간식
4	10:30 ~ 10:40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5	10:40 ~ 11:00	대·집단활동
6	11:00 ~ 11:30	실외 자유선택활동
7	11:30 ~ 11:50	대·소집단활동
8	11:50 ~ 12:05	화장실 다녀오기 및 점심 준비
9	12:05 ~ 12:45	점심 식사 및 조용한 놀이
10	12:45 ~ 13:10	휴식(및 낮잠), 화장실 다녀오기
11	13:10 ~ 14:00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및 정리정돈
12	14:00 ~ 14:20	대·소집단활동
13	14:20 ~ 14:30	평가 및 귀가지도

남한 유치원의 등원 형태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유치원으로 데려다주고 데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학에서 운영하는 일부 유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등원하고 귀가한다.

따라서 대규모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들이 등원하는 시간에 시차가 있다. 일찍 유치원에 온 유아들은 다른 아이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조용한 자유선택활동을 하면서 기다린다. 전체 유아들이 모이면 인사를 나누고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교사는 새로운 교구 교재를 소개하기도 한다. 유치원에서의 실내 자유선택활동은 그 날에 다루어지는 주제에 따른 활동을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주로 소집단이나 개별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연령에 따라 언어영역, 도서영역, 수조작영역, 과학탐구영역, 역할놀이영역, 블록놀이영역, 조형활동영역, 간식영역, 음률영역, 요리영역, 물.모래놀이영역 등으로 구분되어, 학급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운영된다. 간식은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자율적으로 먹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간식 시간을 정하여 함께 먹기도 한다. 최근에는 정해진 시간에 전체적으로 함께 먹는 경우가 많다.

대집단 활동은 이야기 나누기, 새노래 배우기, 게임, 동화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소집단 활동은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조형활동, 이야기 나누기 심화활동, 동극, 음률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실외자유선택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포함한 복합놀이터놀이, 동식물 기르기, 자연탐색, 텃밭가꾸기, 산책하기, 술래잡기, 다양한 신체놀이 등으로 이루어진다. 점심 식사는 학부모들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최근 유치원에서는 영양이 풍부하고 질 높은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남한 유치원에서의 낮잠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다. 유치원에서 낮잠을 재우기에는 귀가 시간이 어중간하고 밀도 높은 유치원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여 낮잠시간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거의 없는 편이다. 평가시간에는 하루의 주요 활동들을 회상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즐거웠던 일 속상했던 일 등에 대하여 자신의 기분을 이야기 하고 내일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해 알아올 것, 언어전달 활동, 가정으로의 통신문 등 전달사항, 안전한 귀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하는 유아들이 차량을 탑승하면 남아있는 유아들은 차량지도를 하지 않는 교사의 반으로 통합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서 귀가 시간을 기다린다. 차량은 성인이 반드시 함께 탑승해야 한다.

그동안 남한의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의 특기교육에 대한 요구를 지나치게 반영하여 하루일과를 운영하다 보니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2008년부터 유치원평가가 시작되면서 파행적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은 정상화 방안이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최근 교육부에서는 유치원의 하루 일과를 기본과정(철저한 교육과정 운영 3-5시간), 방과후 활동(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활동, 심화활동, 외국어, 체육, 사물놀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사항은 법으로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학부모들의 특별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시간에서 1시간 정도의 유치원 시간을 연장하여 끝나는 유치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여러 가지 특별활동

이 짧은 오후 시간으로 집중되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특별활동 중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활동을 선별하여 가지 수를 대폭 축소하여 하루에 1가지씩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 북한의 유치원

유치원은 낮은반(4세), 높은반(5세)으로 구분되고, 높은반은 12년제 의무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다. 북한의 유치원은 8월 30일까지 학기를 마치고 9월 1일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 유치원은 탁아소에 비하여 훨씬 규칙적이다. 유치원의 운영 형태는 일유치원(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데려가는 형태), 주유치원(월요일에 맡겼다가 토요일에 데려가는 형태), 월유치원(부모의 장기출장 등으로 1개월간 맡겨두는 형태)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한 유치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유치원의 일과표에 대한 예는 <표 4>와 같다.

<표 4> 북한 일유치원의 일과표

순서	시 간	활 동 내 용
1	06:30 ~ 08:00	어린이 맞이
2	08:00 ~ 08:15	아침체조
3	08:15 ~ 08:35	교양사업
4	08:35 ~ 08:45	교실로 들어가기
5	08:45 ~ 09:00	방송듣기
6	09:00 ~ 09:30	휴식
7	09:30 ~ 10:00	수업
8	10:00 ~ 10:30	휴식 및 새참시간
9	10:30 ~ 11:00	수업
10	11:00 ~ 12:00	자유시간
11	12:00 ~ 13:00	점심시간
12	13:00 ~ 15:00	낮잠시간
13	15:00 ~ 15:10	낮잠 정리정돈
14	15:10 ~ 15:30	낮체조
15	15:30 ~ 16:00	교사자유시간
16	16:00 ~ 16:15	총화시간
17	16:15 ~ 16:30	새참시간
18	16:30 ~ 16:30	집에 돌아가기

북한 유치원에서의 등원 시간에 교양원은 유아 한명씩 인사를 받으며 맞아들인다. 아침 8시까지 유치원에 도착하면 전국의 모든 유치원에서는 15분간 운동장에서 율동곡에 맞추어 아침체조를 한다. “아침체조 하자요. 모두 모여라. 밝고 밝은 햇님도 우리 반겨요. 가슴펴고 신나게 하나 둘 셋. 대원수님 따라서 함께 자라요(시작을 위한 준비노래).” 그 다음에는 가사 없는 교양원이 치는 풍금소리에 맞추어 체조를 한 후 곧 교양을 받는다. 교양사업에서는 큰길가 조심하기, 교실에서 뛰지 않기 등 주의사항 등을 주입한다. 교실로 들어가기에서는 교양사업에 대한 훈시가 끝난 후 행진곡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교실로 들어간다. “화장실 갈 사람은 화장실에 갔다가 인차 들어와.” 북한 유치원에서는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는 노래와 춤으로 일관되어 있다. 즉 교실로 들어갈 때, 나갈 때, 잠잘 때, 잠에서 깬 때, 모일 때 등 대부분의 상황에 해당되는 노래와 춤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매일 15분간 듣는 방송은 중앙방송국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내용은 노래, 착한 어린이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실의 스피커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방송듣기가 끝나면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갖고 곧 바로 수업시간으로 이어진다. 휴식시간에는 교사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이들끼리 놀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업시간은 중앙에서 만들어 배포한 교수안에 따라 하루에 30분씩(4세 낮은반) 두 번의 수업이 편성되어 1주일에 12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5세 높은반은 40분씩으로 운영된다. 유치원에서 2년간 배우는 내용은 정치사상교육을 위해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어린시절’ 과목을 가르치고, 지적교육을 위해서는 ‘우리말’, ‘셈세기’, ‘관찰’ 과목을 가르치고, 정서교육을 위해서는 ‘노래와 춤’, ‘그리기와 만들기’ 과목을 가르치며, 그밖에 체육, 놀이 등을 교육하고 있다. 북한의 유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육방법으로는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이야기와 담화형식, 문답형식, 직관물과 실물교수, 해설과 설복의 방법,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교수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는 교수방법, 통일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언어와 행동을 비롯한 일거일동을 교과서와 교수안에 규정한 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북한의 유치원에서는 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배운다.

하루에 두 번의 수업시간이 끝나면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 주어지며, 유아들은 하루 일과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자유시간은 점심식사를 하기 전에 주어지는 시간이며 바깥으로 나가 자유롭게 놀되 식사 전까지 식사준비를 마치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는 경제사정이 좋지않아 점심식사 밥값을 부모가 낸다. 하루에 2회의 새참시간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식량사정으로 새참이 없는 날이 많아졌다. 하루에 새참을 1회

만 주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원장에게 항의하는 일이 많았으나 지금은 당연히 받아들여 항의하는 경우가 없어졌다고 한다. 점심식사 후에는 약 2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잠자기 싫어도 억지로 잠을 자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라고 한다. 잠자리는 아이들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 낮잠을 자고나면 낮 체조 시간이 있다. 모든 영유아들은 각 반별로 줄을 서서 스피커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에 맞추어 체조를 하고, 맨 앞줄에서는 모든 교양원들은 시범보이면 아이들과 함께 체조를 한다.

하루에 교양원에게 주어지는 교양원 자유시간에는 교실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며 스스로 매일 계획을 세워 교양수업을 진행한다. 교양원의 취향에 따라 이것 저것 배워주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동안 밀린 수업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다. 오후 4시부터는 하루 일과를 평가하는 총화시간이 있다. 이때 잘한 아이들은 상으로 붉은 별을 주고 잘못된 아이들은 지적을 받는다. 총화시간 이후에는 오후 새참시간이 주어진다. 하루에 두 번으로 계획되어 있는 새참시간에는 김정은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는 노래를 부르고 새참을 먹는다.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새참의 횟수와 내용이 많이 부실해져 영유아들의 평균 신장이 작아지고 평균 몸무게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아침에 누룽지나 빵, 사탕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날 유치원에서 인기가 높다. 아무리 힘이 센 아이라 하더라도 누룽지를 얻어먹기 위하여 온갖 애교를 떠든다. 북한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애교를 떠는 데 익숙하다.

. 북한의 소학교(인민학교) 체험 이야기

필자가 아주 오래전 북한의 취학전 교육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쓸 때 인터뷰 했던 북한에서 온 선생님 출신 학부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은 '내가 체험했던 인민학교 이야기'라는 책을 3권 냈습니다. 그 때 저자에게 직접 받았던 책을 살펴보면서 북한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어 발췌해 봅니다. 지금은 세월도 많이 지나고 시대도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겠지요.

“북한에서는 낮은 반부터 유치원에 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국가에서 모두 경영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낮은 반의 경우는 의무교육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낮은반의 첫 생활을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김일성 어린시절이야기, 놀이, 놀래와 춤, 그리고 체육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이 중에서 노래와 춤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잘 간지하고 와서 할머니께 재롱을 피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짓궂은 애가 만일 누렁지를 가져오면 그 애는 왕이되고 다른 대들은 그 애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싸움을 시키기도 합니다”

“김일성 초상화를 보면서 ‘야, 암만봐도 강덕기 닮았지’.....선생인, 동혁이는 아버지 대원수님보고 강덕기라고 했습니다.....손동혁, 네가 정말 아버지 대원수님을 강덕기라고 했니! ... 동혁이는 얼굴이 새파래지고 눈문을 글썽이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동혁이는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먹는 이밥과 미역국 한 그릇! 우리가 먹는 점심밥은 이것이 전부였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대단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이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가장 싫은 시간입니다. 잠자기 싫어도 억지로 자야합니다. ‘야, 선생님 나가셨다. 모두 일어나!’ 기다렸다는 듯이 몇몇 아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교실 안은 금새 야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자는 다른 친구를 흔들어 깨우는 아이, 베개를 던지는 아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치는 아이 등등.....그 날 처음에 소리쳤던 광일이가 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많이도 맞았습니다.광일이는 그 이후부터 졸업 때까지 낮잠시간에는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참은 유치원만 있습니다. ‘동무 동무 모여라, 새참시간 됐단다. 원수님의 사랑인 새참시간 됐단다. 우리 모두 모여앉아 맛있게 먹자야!’ 우리 모두는 김일성의 초상화를 향하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먹습니다. 유치원에서 주는 손가락 과자를 1-2개만 먹고 3-4개는 잘 숨겨서 집에 가지고 가서 두고 먹거나 동생을 주기 위험합니다. 할머니 드리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새참을 빼앗아가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토벌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운동회 날은 장난감 따는 날입니다. 부모님들의 관심이 가장 컸습니다. 경기가 재미있기보다는 따 온 장난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자신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는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미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일은 누구든지 다 기억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두 사람 그 것은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이지요.”

“친절한 불도젤 아저씨는 그 기계의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말르셨지만, 마음만은 그 기계에 걸맞는 것 같았습니다.”

“야! 신나는 들놀이 날이다. 어머니는 금룡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금룡이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이밥에 계란반찬을 싸가지고 가게 돼서 마냥 즐거웠습니다.”

“선생님은 규율을 잘 지킨 어린이들을 선정하여 가슴에 붉은 별을 달아줍니다. 제일 큰 표창이 이 붉은 별입니다. 금룡이도 자기 가슴에 그 붉은 별이 무척이나 기뻐있던 모양입니다. 별을 단다고 더 나은 점은 없었지만 알입니다.”

“메뚜기를 잡는 아이들은 눈 안에 들어가 벼포기를 쓰러트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메뚜기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푸른 색에서 붉은 색으로 변하는 메뚜기 그 맛을 기가 막혔습니다.”

“금룡이는 앞으로 크면 무엇이 되지? 인민군이 되겠어요. 금룡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 친척들이나 마을 어른들이 꿈을 물어보면 항상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드디어 놀이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번 놀이 시간에는 미국놈 때려잡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야! 합성을 칩니다. 5개 모형이 있습니다. 3개는 미국사람, 1개는 쪽바리, 1개는 남조선 앞잡이 000라고 써어져 있었습니다. 모형을 세계 때리다보니 손과 손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불쌍한 남녘 땅 어린이. 북조선에서 태어난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아, 남조선 애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그 어린 나이에 강통을 들고 거리에 나가야 하다니.....”

“차렷, 충성 인민학교. 인민학교 학생이 된 나는 이제 7시에서 1초도 늦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정확히 7시 10분에 교실로 들어가 정성사업과 독보를 해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성사업은 김일성 초상화 닦는 일이고, 독보는 김일성에 관해 공적을 한 사람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2학년 때 조선소년단이 되었어요. 금룡아 축하해. 그래, 정말로 축하해. 고맙다 고마워, 나만 돼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아직 최종심기도 남았는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 모든 학생은 금요일이 되면 토요일에 진행되는 소년단 조직생활총화 시간에 할 토론을 학습장에 적어야 합니다.....올리비판이란 토론하던 학생의 잘못을 들어가며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소년단 간부 선거하는 날. 아버지가 당간부이면 그 자녀도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간부로 지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일반 노동자이면 그 자녀는 결코 간부로 지명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에 부치는 꼬마 계획. 꼬마 계획이란 바로 재생활 수 있는 철, 귀금속, 종이, 비닐, 유리, 병 등을 모아 팔아서 그 돈을 국에 헌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 8월, 그 때 국가에서 주는 배급이 중단되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운네도 그 당시 피해를 본 사람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정운이 아버지는 돈을 벌러 시베리아 벌목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가정형편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4학년 마지막 들놀이 날의 아픈 기억. 이 날 우리 반에서 선생님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애들이 몇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날따라 어머니께서도 매년 싸주시던 선생님의 도시락을 깜빡 잊어버리셨던 모양입니다.....선생님은 총화시간에 누구는 몇 번 선생님 도시락을 싸왔는지 쪽 읽어 내리셨습니다.”

“시험이 싫어요. 만일 시험기간 중에 시간에 맞춰 나오지 못하면 매우 심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생활총화시간에 자아비판은 물론이려니와 심한 경우 체벌까지 받게 됩니다.”

“여름방학,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방학기간에는 하루일과가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일과표 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특히 이 중에는 기상시간, 아침달리기, 독서시간, 오전 학습, 특히 일기쓰기는 다른 것과 달라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농촌을 도와야 한 대요. 북한에서 잘 쓰는 말인 ‘영양단지’란 거름, 부적토 등으로 각종 모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든 모판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은 노력동원이 있습니다. 고학년인 3학년만 되면 누구나 이 노력동원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근교에 있는 농장으로 동원됩니다. 강냉이, 채소 등 모종 옮겨심기, 보리밭기, 이삭줍기 등이었습니다.”

. 나가며

남북한 유아교육기관의 하루일과를 살펴 볼 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교육이념이 하루일과의 교육내용에 반영되고 있다. 남한은 홍익인간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에 따라 운영되고,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사상과 주체사상의 이념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남한의 교육이념이 교육내용 속에 은연 중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점에 비하여, 북한의 교육이념은 노래, 훈시, 교양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둘째, 남한 유아교육기관의 하루일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체제에 따라 운영시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집은 종일제 중심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유치원은 8시 30분에 시작되어 시간연장제 중심으로 2-3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탁아소의 운영시간은 오후 7시 30분까지 더 긴 시간 영아를 보호하고 있고, 유치원의 운영시간은 4시 30분 정도이다. 북한의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시간이 남한 보다 조금 더 길고, 남북한 모두 유치원 보다는 탁아소와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더 길다.

셋째, 남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기관에 따라 교사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북한의 유치원에서는 정해진 교과서와 교수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시간에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하루일과 중 교사 재량 시간으로 편성된 시간이 있기는 하나 그 시간도 교과서의 진도에 따라 아이들이 잘 습득하였는지를 검열하는 평가를 대비한 보충수업 시간으로 할애하여 진행되는 경우 많다고 한다. 검열 때 북한에서는 유아들이 배운 것을 직접 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시켜보고 할 수 없는 경우 교사는 비판을 받는다.

넷째, 남한 유아교육기관의 하루일과는 개별활동, 소집단활동, 대집단활동, 유아주도 개별활동, 교사주도 집단활동의 다양한 교육방법의 균형을 중요시 하는 것에 비하여, 북한 유치원의 하루일과는 주로 교사주도 집단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집단주의 교육방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노래와 춤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다섯째,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의 하루일과에서 총괄평가는 하루를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를 회상하는 데 강조점을 두는 점에 비하여, 북한 유치원에서의 총화 시간은 하루 일과 중에서 잘한 아이와 못한 아이를 구별하여 붉은 별을 주거나 주지 않는 대리적 보상과 별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 유아교육에서는 상호작용에 기초한 이론을 중요시 하지만 북한에서는 학습이론에 기반을 둔 이론을 중요시 하고 있다.

여섯째, 남한의 유치원에서는 낮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다. 어린이집에서도 어린 영아들만 낮잠을 재우고 나이 든 유아들은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탁아소의 영아는 물론 유치원 유아들을 모두 잠을 재우고 있다. 이 점은 남한에서 현장에서 변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여섯째, 남한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영양이 풍부하고 대체적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활용하여 비교적 양질의 간식과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결과로 인하여 정착된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식량부족 등으로 인하여 새참을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교적 식사의 분량이나 영양상태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7). 유아교육법 13조. 법률 제 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2019. 4. 23 인출.
로동신문(2012. 9. 26). 2013년부터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보건복지부(201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2019. 4. 23 인출.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여금주(1995). 내가 체험했던 인민학교 이야기(1). 서울: 도서출판 새싹나라.
여금주(1995). 내가 체험했던 인민학교 이야기(2). 서울: 도서출판 새싹나라.
여금주(1995). 내가 체험했던 인민학교 이야기(3). 서울: 도서출판 새싹나라.
이기숙(2016).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최민수(2002). 북한유아교육론. 서울: 문음사
최민수, 정영희(2011). 통일한국의 영유아 교원양성 제도 및 정책 방안.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과제. 2011년도 한국통일교육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연구소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3-52.
한만길, 강구섭, 권성아, 박재윤, 양승실, 조정아(2012). 교육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통일미래 만들기: 남북한의 어린이를 위한 기념일과 아동인권

백 은 영 (공주교대 유아교육전공)

1. 시작하며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방정환 탄생 120주년입니다. 방정환과 어린이운동가들은 지금으로부터 96년 전인 1923년 식민지 조선에서 ‘아동권리 공약’을 선포한바 있습니다(한국방정환재단 <http://www.korsofa.org>). 이는 국제연맹의 ‘제네바 아동권리선언’(1924년)보다 1년 앞선 것으로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선언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황해익 외, 2016). 해방이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갈림길에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은 1990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교육권의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이재연 외, 2013).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남북한이 한민족이었을 때의 어린이날 제정부부터 오늘날 어린이를 위한 기념일까지의 변화와 아동권리공약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어린이날과 아동권리공약 3장¹⁾

남북한은 비록 분단되어 있지만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남북한이 분단되기 전 아동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유교적 전통아래 어린이들은 장유유서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대를 잇는 주변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방정환은 성인 중심의 사회적 병폐를 지적하고 아동 중심 사회를 지향할 것을 촉구하며, 성인의 세계와 다른 아동의 세계를 인정하고 어른의 존재가 어린이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1) 본 발표문에서 ‘어린이날과 아동권리공약 3장’의 내용은 이재연, 박은미, 황옥경, 김형모, 이은주, 강현아 (2013), pp. 79-82에서 발췌함.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정환은 1923년 5월 1일에 개최된 제1회 어린이날 전국 행사에서 ‘아동권리공약 3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동권리공약 3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권리 선언으로, 이를 통해 방정환은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지위 존중, 노동과 착취 금지, 교육과 여가,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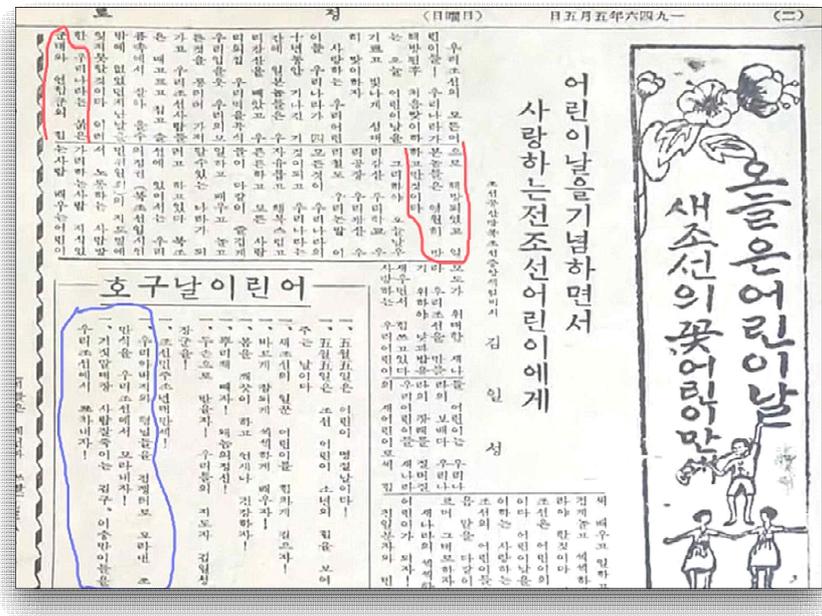
아동권리공약 3장

-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
-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만 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동권리공약 3장’은 그 내용이 3개 항에 불과하지만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보다 아동권리를 더 포괄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아동의 인격적인 존중과 문화적인 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훨씬 더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조항은 아동의 인격적인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김정래, 1999). 이것은 당시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성인중심의 유교사회에서 장유유서의 윤리가 본질대로 행해지지 못한 채 아동을 하찮게 여기고 무조건 복종하기를 바라는 폐단을 철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항은 아동의 노동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동 노동 금지가 만 14세 이하인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비하면 낮은 연령이지만, 당시 일찍 결혼하는 조혼풍속이 있었고 교육의 기회가 적은 대신 근로 현장에 아동이 일찍 뛰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진보적인 선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김정래, 1999). 셋째 조항은 문화적인 권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아동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놀 권리와 배울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당시 아주 진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날과 기념행사

1931년 방정환이 세상을 떠난 후로 어린이날은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다가 1937년에 이르러서는 일제의 탄압으로 행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 다시 부활되었습니다(이재연 외, 2013). 아래 신문기사를 통해 보면, 북한에서도 1946년까지는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1949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국제민주여성연맹 이사회에서 ‘국제아동절’이 제정되면서, 북한은 이날을 어린이들의 명절로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1946. 5. 5. 정로(로동신문의 전신)

출처: <https://cafe.naver.com/booheong/176194>

현재 북한은 국제아동절(6월 1일)과 소년단 창립기념일(6월 6일)이라는 어린이들의 명절이 있습니다. 국제아동절이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날이라면 소년단 창립기념일은 7세부터 13세까지의 소학교 취학 아동들의 날입니다. 소년단(노동당 산하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소속) 창립기념일에는 학생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주는 입단식 기념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는 사실상 북한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연합뉴스TV, 2018. 05. 05).

국제아동절(6월 1일)에는 평양의 놀이공원인 만경대 대성산 유원지 등에서 율동과 악기 연주, 짝지어 달리기, 공차며 달리기, 밧줄당기기 등 각종 체육활동, 바람개비 돌리기, 꽃줄넘기, 씨름 등 민속놀이, 학예회 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펼쳐집니다(연합뉴스TV, 2018. 05. 05). 어린이들을 위한 기념일에 즐거운 활동들을 하는 모습은 남한의 어린이날과 유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남한의 어린이날(5월 5일)이나 북한의 국제아동절(6월 1일)은 명칭은 다르지만 한 민족이었던 시절 방정환의 아동권리공약에서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던 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 미래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유지·계승해야 할 활동일 것입니다.

북한의 국제아동절 행사 모습 1



출처: SBS 뉴스 2016. 06. 02

그러나 북한에서 국제아동절은 공휴일은 아니므로, 모든 아동들이 이런 활동들을 즐기며 유원지나 공원에서 야유회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국제아동절에서 행사에 선보일 예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사 분란한 동작을 보여주고자 몇 달 전부터 고된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상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국제아동절 행사를 통해 아동복지사업의 선전에 공을 들이며 어린이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과 배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육군, 2018. 11. No. 396).

북한의 국제아동절 행사 모습 2



출처: 육군, 2018. 11. No. 396

놀이 활동에서 ‘미군 병사를 향해 과녁으로 활을 쏘는 게임’, ‘군복차림의 어린이들이 미사일 발사대 모형을 타고 장난감 무기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육군, 2018. 11. No. 396) 등 인간에 대한 적개심과 사상교육을 하는 모습은 아동권리공약의 세 번째 조항인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만한’에 위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방정환의 정신을 이어받아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어린이날이 기념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957년에는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이 공포되었고, 1988년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어린이 현장의 전문에는 “대한민국 어린이현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라고 하여,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 존중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재연 외, 2013; 황해익 외, 2016).

■ 어린이헌장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퍼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빛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출처: 황해익 외(2016)

4. 남한과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남북한이 어린이를 위한 기념일을 지키며, 이들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해 오던 가운데, 1989년 유엔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90년부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국제법으로 공포됩니다. 남한과 북한도 각각 1990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원래 당사국은 비준 후 최초 2년 이내,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북한은 1996년 2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한 이래 최근 2016년에 제 5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도경욱 외, 2016).

제 5차 보고서에서 북한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 아동들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아동 사랑 정책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였으며 그들의 복지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촉진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아동권리 보장법 제정(2010), 보통교육법 제정(2011), 전반적인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법령 발표(2012),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창설(2013),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2014), 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검토와 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및 회의 조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습니다(도경욱 외, 2016). 그러나 2014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김일성, 김정일, 이제는 김정은을 존경하고 숭배하도록 배운다. 구호가 적혀 있는 표지판, 최고지도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포스터와 그림들은 아이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치원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교과과정에는 수학, 미술 및 음악과 같은 보통의 교과목에 더하여 비상식적으로 많은 분량의 10대원칙과 북한의 공식 혁명역사를 비롯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과 교시에 대한 학습에 할애되어 있다. 북한에서 교사였던 한 사람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작성했거나 그들에 관한 사상 교육이 사실상 북한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학습 내용은 학생들의 이해력과 암기력 수준에 따라 구성된다. 김일성의 사상과 혁명 역사 과목을 잘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김일성에 대한 모방을 추구하도록 교육받는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아이들은 최고지도자만 그리도록 장려되거나 김일성을 만족시킬 만한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좋은 작품은 학교에 전시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그림들은 김씨 일가를 묘사하거나 일본군 또는 미군을 칼이나 연필로 찌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한 증언자는 학생이었을 당시, 김일성을 만족시키는 그림 외에 다른 것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전사가 되는 것, 즉 적을 죽이는 암살자가 되어 한국으로 가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를 위하는 마음보다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의지를 갖도록 교육받는다. 아이들은 국가를 보호하고 주민들을 부양하는 아버지 같은 인물로 김일성을 표현하는 애국적인 이미지와 구호에 둘러싸여있다. 이러한 메시지와 사상 주입은 유년기 시절에서부터 지도자에 대한 충심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모보다도 최고지도자에 대한 더 큰 존경과 헌신을 강요함으로써 가족관계의 균열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이와 같은 김씨 일가의 숭배에 불균형적으로 할애된 교육시간과 내용은 아동권리협약 29조에서 밝히는 ‘아동 교육의 목적이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 이질적인 문명에 대한 존중,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이해·평화·관용 등으로 제시한다’는

점과 상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방정환이 공포한 아동권리공약 3장의 정신과도 맞지 않음이 보입니다. 사상교육 중심뿐 아니라 아래의 사례에서 보이는 소년단 활동 또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주민은 조선노동당의 감시 아래에 있는 대중조직의 활동에 가입하고 참여해야 한다. 회원 가입은 인민학교 입학과 동시에 시작한다. 7세와 13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소년단의 회원이 된다. 그들의 활동은 14세에서 30세의 북한 주민으로 구성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간부들이 감독한다.

...중략...

한 때 소년단의 단원이었던 한 증언자는 모범 학생이 되기 위해, 학업과 방과 후 기타 활동에서도 본보기를 보이려고 노력했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녀와 다른 학생들은 폐지와 폐비닐과 같은 물품을 제출하여 학교에 기여하였다. 또 다른 증언자는 소년단의 단원들이 조선노동당의 구호를 거둬 외치고 거리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을 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소년단 단원들은 국가의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과 선거 기간 동안 구호를 외치는 일에 가담해야 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소년단 입단식 모습(2018 북한이해, p. 181)

어린이들에 대한 강제적 집단 선동 행사, 노동 착취 등은 아동권리협약 제31조와 제32조-어린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권리, 어린이들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아동권리공약의 세 번째 조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동권리의 침해는 퍼레이드, 군중집회, 기타 안무가 포함된 공연에 참여하면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단체조는 북한 외화 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이는 많은 수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이들 관광객들은 (국가가 정한 이상적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아닌 이상) 참여를 강요 받는 아이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대부분 무지하다. 훈련 기간은 거의 일년 내내 진행되며, 4~6개월 정도는 학교 수업시간을 희생하고 하루 종일 연습을 한다. 훈련과 연습은 가혹하다. 자기가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체벌을 받거나 저녁 연습을 추가로 해야한다. 대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쳤던 전직 교사는 그가 집단체조를 위해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했다고 조사위원회에 알렸다. 그는 학생들이 매우 혹독한 환경에서 하루에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거나 대학생이었지만, 일부 군부대 인원들도 참여했다고 한다. 장애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제외됐다. 이 증언자는 많은 아이들이 피로로 훈련 중에 쓰러졌다고 회상했다. 많은 수의 참가자들은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중략...

조사위원회의 도쿄 공청회에서 L양은 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김정일이 보는 가운데 펼쳐지는 공연의 짧은 일부분을 그녀의 학급 전체가 맡아서 해야 했기 때문에 대학생 때 한 학기 전체를 빠지고 하루에 10시간씩 6개월 동안 연습해야 했다고 하였다. 강도 높은 훈련 때문에 참가자들은 탈진으로 기절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연습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기절하는 일이 흔했다. 연습은 완벽을 추구했다.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사람은 훈련장에 자정까지 남아야 하는 처벌을 받았다. L양은 선생님들이 급성 맹장의 고통을 참아가며 연습한 7~8살 정도의 소년의 예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 소년은 결국 시의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고, 사망한 아이는 김정일이 지켜보기로 한 행사를 위해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 북한 사회는 표면적으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집단선동, 노동착취, 사상교육 등의 면에서 아동권리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비록 남한과 북한은 분단되어 있지만, 다름의 역사는 같음의 역사보다 매우 짧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김진선, 200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46년까지도 남북한이 모두 어린이날을 사용하고 기념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문화를 공유해 왔고, 민속놀이 등의 역사성을 가진 우리만의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최민수, 신현미, 2012). 북한의 국제아동절이나 남한의 어린이날에 남북한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 활동들-울동과 악기 연주, 짝지어 달리기, 공차며 달리기, 밧줄당기기, 바람개비 돌리기, 줄넘기, 씨름 등-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 속에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일 것입니다. 최근 북한 관련 자료들(2018 북한이해; 베이비뉴스 2015. 01. 31)에 의하면, 북한에도 놀이공원이 있고, 북한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등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스키를 타는 어린이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이와 같은 문화를 모든 어린이들이 진정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타는 북한어린이

(2018 북한이해, p. 201)



2010년 평양에 새롭게 문을 연 개선
청년공원: 급강하탕(자이로드롭),
배그네(바이킹), 관성비행차(롤러코스터)
같은 최신 시설의 놀이기구가 있음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2015. 01. 31



북한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영리한 너구리'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2015.01. 31

참 고 문 헌

- ‘오늘은 우리들 세상?’... 김정은 찬양 빠지지 않는 북한의 어린이날. SBS 뉴스 2016. 06. 02.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394068&memberNo=23001556&vType=VERTICAL>(2019. 04. 21 인출)
1946. 5. 5. 정로. <https://cafe.naver.com/booheong/176194>(2019. 04. 19 인출)
- 통일교육원(2014).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통일교육원(2017). 2018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 김정래(1999). 아동권리협약 채택 10주년과 한국아동의 권리. 아동권리연구, 3(2), 7-11.
- 도경욱, 임예준, 이기태, 홍제환(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 북한 어린이들도 테마파크에 놀러 다닐까.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2015. 01. 31.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18>(2019. 04. 21 인출)
- 북한의 어린이날 ‘국제아동절’ 풍경은. 연합뉴스TV, 2018. 05. 05.
www.yonhapnewstv.co.kr(2019. 04. 21 인출)
- 북한의 어린이날 풍경. 육군, 2018. 11. No. 396
- 이재연, 박은미, 황옥경, 김형모, 이은주, 강현아 (2013).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장혜준 (2007). 도덕과 통일교육에서의 민족공동체 교육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민수, 신현미 (2012). 유치원 5세 누리과정 및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서의 남북한 민족공동체의식 관련 내용 비교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365-388.
- 한국방정환재단 <http://www.korsofa.org>
- 황해익, 남미경, 서보순, 김병만 (2016). 아동권리와 복지. 파주: 정민사.

충남 아동 복지에 관한 연안과 방안

정 윤 선(목원대학교 교수)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정책과 방안

전윤선
junys0424@naver.com

목 차

1.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정책
2. 해외 국가별 아이키우기 정책
3.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방안

1.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정책 충남 전국 최초 '24 시간제 어린이집'



주·야 24시간 보육... '옛 도지사 관사를 아이들 공간으로'

'24 시간제 어린이집 - 충남아이키움뜰'

- 옛 도지사 관사를 보육 공간으로
-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 주간 보육서비스
 -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대상: 영유아 6개월 ~ 36개월
- 야간 보육서비스
 - 시간: 오후 6시 ~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 대상: 24개월 ~ 만 5세 미만

충청남도의 근로시간

- 월간 근로시간
 - 전국은 173.2 시간
 - 충남 179.7 시간

- 초과 근로시간 : 2018 년 5 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전국 11.0 시간
 - 충남 19.6 시간

여가시간을 아이키우기로 ~

여가시간

(단위 : %)

3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5~7시간 미만	7~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
26.2	45.4	22.9	4.6	1	3.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2016):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시간이 부족하여	경제에 부담 때문에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여가 시설이 부족하여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이전 경험이 부족해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46.4	37.8	4.4	2.4	2.3	6.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2016):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가사분담 견해 및 실태(13세 이상 인구)

(단위: %)

구분	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남성	100.0	4.7	40.6	52.0	2.5	0.2
여성	100.0	1.7	31.4	65.2	1.3	0.4
계	100.0	3.2	35.8	58.9	1.9	0.3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2018)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단위: 개소, 명)

구분	센터	0-6세 영유아	센터 1개소당 지원 영유아 수	영유아 규모 순위 (적은 곳이 1순위)
계	91	3,153,489	34,654	-
서울시	26	530,484	21,219	2
부산시	5	187,409	37,482	7
대구시	2	142,275	71,138	14
인천시	6	186,583	31,097	5
광주시	1	95,232	95,232	15
대전시	1	97,680	97,680	16
울산시	4	81,221	20,305	1
세종시	1	24,353	24,353	4
경기도	25	860,224	34,409	6
강원도	2	81,964	40,982	8
충북도	2	97,656	48,828	10
충남도	2	136,336	68,168	13
전북도	5	106,734	21,347	3
전남도	1	108,200	108,200	17
경북도	3	155,467	51,822	11
경남도	4	217,810	54,453	12
제주도	1	43,861	43,861	9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재구성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사업

구분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로버부모교육 어린이집이해와 운영위원회참여교육 클리감수성증진 부모워크숍 스마트미디어 레슨교실 심폐소생술 아동학대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로버 부모교육 부모역량강화 교육 가정 내 놀이환경 점검 (전문가 방문 점검 및 부모 자체 점검)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사랑플래너(전문가) 부모양육상담 자녀양육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상담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 전문기관 상담 연계 및 지원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허그맘 앤 태디와 함께하는 행복팡팡 부모자녀참여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감발달 신바람 놀이 놀이로 소통하기 아빠놀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행복 나눔이 애들이, 숲에서 놀자!
발간자료	-	자녀양육정보지 : 아자, 도담도담 이야기
행사, 공모	-	행복한 후리아이 사진 콘테스트 이용후기 공모전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배터리, 장바구니, 밴드, 리플렛 전단지, 에코백, L화일, 스카프, 뿔, 플티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도 탁상달력, 리플렛, USB, 재가입 회원 스킨-포크 세트, 장난감 대어용 장바구니, 파우치, 플티슈, 플펜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스마트원센터 (스마트미디어레슨교실-영유아 및 부모) 건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찾아가는 문화 공연) 세이브터칠드런 (클리감수성증진교육-영유아 및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새소망의 집: 미혼모 대상 부모 인성교육 지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부모 자녀 함께 하는 행복나눔이 공동 계획 및 진행 청아이트세함관: 애들이, 숲에서 놀자! 공동 계획 및 진행
장난감 도서 대여 놀이실 운영	장난감도서대여(고정식, 이동식)	장난감 및 도서 대여(두정전, 청룡점)
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키움들)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놀이터 운영
부모 소모임, 육아카페 공연 등	-	시간제보육 이용자 상담, 제공기관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재구성

충남아기수당 도입

- 기대효과
 -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과 유사명칭으로 혼란 방지
- 사업개요
 - 사업비 : 연 226 억원 (도비 113, 시군비 113)
 - 사업내용 : 0~12 개월 영유아 월10 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수준 무관 15,500 명

소규모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 기대효과
 -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
 - 근로자와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 우수한 인력확보 및 고용안정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사업비 : 400 백만원 (도비 200, 시군비 200)
 - 사업내용 : 2 개 이상의 기업참여
 - 수혜대상 : 영유아 (학부모) 및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시간 확대 지원

- 기대효과
 - 보육교직원의 휴식권 보장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증대로 양질의 서비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4 시간에서 6 시간으로 확대
(단, 가정어린이집은 1 일 6 시간, 월 20 일 이상 근무)
 - 수혜대상 :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 기대효과
 - 교육 평등권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유형 간 격차해소
 -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업비 : 71,792 백만원 (도비 21,538, 시군비 50,254)
 - 사업내용 : 보육료 차액 발생 금액 지원
(월 64~87 천원)
 - 지원대상 : 만 3~5 세

유치원 교육비 차액지원

- 기대효과
 -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개요
 - 사업비 : 612 억원
 - 지원대상 : 만 5 세 사립유치원 원아 (135 개교 , 6,347 명)
 - 지원내용 : 원아 1 인당 최고 월 20 만원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보급

- 기대효과
 - 미세먼지 , 황사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건강보호
 - 안심 보육기반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비 : 31 억원 (국비 10.8, 도비 7.7, 시군비 12.8)
 - 사업내용 : 도내 어린이집의 교실 및 유희실 보급 (1,955 개소 , 8,366 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및 관리

- 기대효과
 -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건강보호
 - 쾌적한 교실 환경 조성으로 학업성취도 향상
- 사업개요
 - 사업비 : 44 억원
 - 사업내용 : 교실, 보건실, 관리실, 특별실 등 스펀드형 공기청정기 설치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충남 여성 고용률 향상

(단위 : %)

		총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전국	53.2	46.9	61.6	68.1	65.2	51.1	26.1
	충남	54.3	37.7	65.7	70.4	67.1	55.2	38.5
고용률	전국	51.6	43.6	59.9	66.7	63.9	50.1	25.9
	충남	53.2	34.1	64.8	70.2	66.4	55.2	38.4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7년도 하반기 원자료

2. 해외 국가별 아이키우기 정책 - 프랑스 -

- 신생아를 위한 맞춤형 보육
 - 신생아들을 위한 보모
 - 학교등하교도우미
 - 긴급돌보미
 - 스케줄에 따른 가정 보모
- 보육지원비: 유치원 입학시까지 보장 (1명당 234유로)
(부모의 소득과 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장애아동 최대 607.63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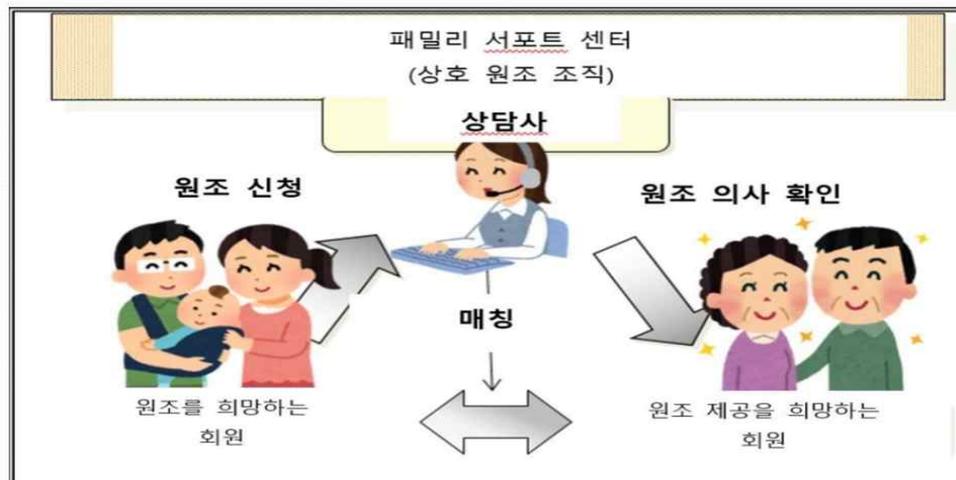
미국 아이키우기 정책

- 모(母)와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
- 아버지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DadTime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한 부(父)의 애착형성 프로그램
- 아동보육발전기금: 13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일본 아이키우기 정책

- 베이비시터 파견 사업
- 임대료와 주택 개수 보조로 육아 세대 지원
- 안심어린이 기금
- 육아 원조활동 지원사업 (패밀리 서포트 센터, 상호원조)
- 유아 가정 전세대 방문사업 (생후 4 개월 이내 1 회 원칙)
- 후쿠이 자녀 지원금

일본 패밀리 서포트센터



영국 아이키우기 정책

- 비과세 보육: 대상 - 12 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30 시간 무상보육: 대상 - 0~4 세 자녀를 둔 부모
- 유아기 발달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2019 년)
 - 전세계적으로 2 억 5 천만명의 5 세 이하 성장과 발달이 위협한 것으로 추정
 - 수백만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
 - 영국정부는 5 년 동안 2 천 50 만 파운드 지원
 - 국제적으로 영유아의 영양실조와 신체, 사회, 정서적 발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 2030 년까지 여아, 남아 양질의 유아기 발달을 도모

독일 아이키우기 정책

- 어린이수당: 최고 185 유로 6 개월 동안 혜택
- 어린이집 무상교육
- 세금우대혜택, 아동추가수당
- 새학년패키지, 무료급식, 무료대중교통, 특별수업비지원
- 육아돌보미지원
 - 만 3 세 이하 약 167,500 명을 돌봄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외의 다른 육아형태
 - 2006 년 ~2018 년 사이 280 퍼센트 증가율을 보임
 - 육아돌보미 각 기관마다 일년에 150,000 유로 지원
 - 육아돌보미 교육: 직업교육 300 시간 수업, 140 시간 실습

캐나다 아이키우기 정책

- 아동수당: 5 세이하 6,400 달러, 6~17 세 5,481 달러
- 양육수당: 소득이 낮을 수록 높아지는 형태
- 부모 대신 아동 돌보는 가족에게 지원금 지급
- 양질의 일자리 조건으로 보육혜택 포함
 - 최저임금 15 불 회복
 -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
 - 노동자의 연금과 혜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파산법 개혁
 -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3.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방안 - 보육 및 교육 인력관리 -

- 육아정책 동향 연구결과 보육부문 인력의 기술과 지속 가능성이 악화되고 있음
-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하여 양질의 보육 최우선
 -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 발달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
 - 숙련되고 자격을 갖춘 보육 인력은 양질의 교육 제공의 핵심
 - 보육부문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기적 전략 필요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이 행복한 충남
 - 아동은 모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성 정책확대

충남 2018 년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 지원 현황

연번	단 체 명	사 업 내 용
계 (180,000,000원)		
1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취약가족의생활안정및자활.자립을위한사업 "즐거움변화"
2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위한여성지도지역량강화워크숍
3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여성연대 지역사회의 격을 높인다
4	한국레크레이션연구협회	여성인재양성사업
5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성폭력예방인형극공연사업
6	가정을보호하려는시민모임천안본부	파이팅상글맨 행복플러스 우리가족
7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리더교육
8	충청남도간호사회	여성건강증진사업
9	(사)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건강가정육성및가족관계 증진사업 2해+2해+4랑
10	논산YWCA	건강한스폰 지역식생활 교육 활동가
11	(사)고향을살아가는주부들의모임충남도본부	행복한 농촌생활 가족사랑 프로젝트 행복한 가족반상 식생활교실
12	(사)농기주부모임 충남연합회	농촌여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전통장사업
13	계룡퀵트협회	희망 여기있어요

충남 2018 년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 지원 현황

14	천안YWCA	여성기장을 위한 위풍당당 바리스타
15	충남청소년비전센터	청소년유해물 예방지도자 양성
16	당진어울림 여성회	당진여성도전프로젝트 "꿈날개"
17	(사)계룡사랑시민협의회	건강가정육성 및 가족관계증진사업
18	천안여성회	찾아가는 여성인권영화 & 특특!
19	아산시동부노인복지관	한땀한땀모으는 아름다운날개짓
20	(사)한곡제장예인협회충청남도합천군지회	행복한 나 행복한 우리가족
21	천안지역사회교육협의회	명함의 주인공은 나야나
22	(사)천안여성의전화	인생이모작, 나의인생 이야기책이 되다
23	천안녹색소비자연대	건강한 여성리더양성으로 안전한지역사회 만들기

충남 2018 년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 지원 현황

24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의취업역량강화를위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운영
25	(사)소비자교육중앙회충남도지부	건강기정육성을 위한가족관계 증진 부모님 제가 모실게요 프로젝트
26	충남가족복지센터	노인심리케어전문가
27	충남여성포럼	농촌의 다원적가치 확산을 위한 한일여성 국제교류사업 논두렁 패션쇼
28	(사)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홍성사회복지회)	저학력 성인의 학력 인정을 위한 중졸(중학교)검정고시 지원사업
29	(사)우리가족	여성리더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
30	충남가족복지상담연구소	나 답게!, 너 답게! 자기성장프로그램
31	예산가정상담소	MOTHER AND MOTHER 여성이 여성을 지원하는사업
32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교육세상을바꾸다 탄생우리마을 정신건강 지킴이
33	리오복지재단부설 테레사의집	The Sound Of Music
34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전사회계2급자격증취득과정

경청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어진 오늘 행복하시길 ~



从中国人的立场看南北儿童的样子和教育问题

- 刘婷婷(黑龙江省八达路桥建设有限公司),
통역(袁帅, 黑龙江贯通律师事务所)

我们的生活离不开教育，查看地球上的国家，发展教育的同时发展自己的文化。

在这方面，南北儿童的生活与中国相比没有太大差别。

- 第1, 朝鲜的教育理念反映在同一天的教育内容中。南韩根据人民的民主主义运营教育理念，朝鲜根据社会主义教育思想和主题思想理念运营，整体反映了国家所处的文化特征，中国情况也在教育中寻找当今中国社会面临的重大问题社会不平等的原因和解决方案。显然，让儿童善用国家的政策性----在这方便，中国、韩国、朝鲜没有什么不同。
- 第2, 韩国幼儿教育机关的每一天都是根据托儿所和幼儿园两元化的体质来表示运营时间的差异。托儿所以终日制为中心，从早上7点30分开始到下午7点30分运营，幼儿园从8点30开始运营，以加时制为中心，运营到2到3点，北韓的托儿所的运营时间到下午7带你30分为止，对婴儿的保护时间长，朝鲜的幼儿园运营时间比韩国的时间长，中国和朝鲜一样，加强保护对托儿所或职场儿童的措施强，中国的发展得到了加强，仍然被忽视的儿童问题很多。
- 第3, 韩国的托儿所和幼儿园虽然规定根据标准保育过程和幼儿园教育课程进行教学，但是各机关根据教师给予相应程度上的自主性是其特点，但是朝鲜的幼儿园根据规定的教科书和教授案，在全国各地同样的时间教授相同的内容，北韓在一天对教授有裁量时间的规定，但是，根绝教科书的进度，把这段时间作为补充授课时间来进行的情况也很多。中国的情况也是如此，很多情况下进行审查，直接看看孩子们是否能学到什么。从整体上看，即使是中等水平的情况，对负责幼儿园教育的分内待遇也很低，因此出现了问题。

总体上，南北韩的幼儿教育机构分别进行个别活动，小集体活动、大集体活动。幼儿为主题活动，教师为主题的集体活动，形成了多种多样的教育方法。教育最大的问题是在中国，流动于城市的时间和流动于农村的时间之间是不是有100多年的差距呢，指出农村和城市之间党的严重差距。实际上，中国的城市富裕阶层，把子女送到海外留学的家庭不断增加，另外，而农村到城市工作的人，即使把子女带到城市，暂且不提公立学校，就连农民工程学校也很难进入。

现在中国也继续实验根据业绩主义原则选拔精英的教育制度和没有差别的教育制度，因此，中国引入义务教育，降低文盲率，高等教育大众化和优秀人才培养等改革开放以来，中国取得了很多成果，从这个角度看，幼儿教育和南北韩教育改革还有很多课题需要解决。

中国教育的目标和内容大体取决于儒教政治传统社会主义思想、通过经济发展的现代化这3个变数决定的。像中国这样的社会主义国家教育的基本原则是集体主义，这意味着个人利益和集体利益应该重视集体利益，小集体主义和大集体主义在利益关系上应重大集团利益，而阶级内部各集团利益全部服从整个社会发展全部的阶级利益。

中国教育的基本基础是五爱教育，既爱国家、爱人民、爱劳动、爱科学，爱社会主义的宗旨，以五爱为基础进行社会公共教育及相关的社会常识教育，为学生培养良好的道德习惯制定教育标准。

在各种活动中，中国的幼儿教育不仅要强化意识形态，政治思想教育，还要通过教育来解决经济现代化带来的问题，具有双重课

<번역>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는 남북한 어린이상과 교육의 문제

- 刘婷婷(黑龙江省八达路桥建设有限公司),
통역(袁帅, 黑龙江贯通律师事务所)

우리의 삶 그 자체는 교육과 분리될 수 없다. 지구상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교육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문화를 발전하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어린이의 삶은 중국의 경우보다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남북한의 교육이념이 하루일과의 교육내용에 반영되고 있다. 남한은 홍익인간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에 따라 운영되고,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사상과 주체사상의 이념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 나라가 처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오늘날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로 꼽히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교육에서 찾고 있다. 분명히 어린이들에게 국가의 정체성을 잘 수용하게 하는 면에서 중국, 한국, 북한은 다르지 않다.

둘째, 남한 유아교육기관의 하루일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체제에 따라 운영시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집은 종일제 중심으로 오던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유치원은 8시 30분에 시작되어 시간연장제 중심으로 2-3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탁아소의 운영시간은 오후 7시 30분까지 더 긴 시간 영아를 보호하고 있고, 유치원의 운영시간은 4시 30분 정도이다. 북한의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시간이 남한 보다 조금 더 길고, 남북한 모두 유치원 보다는 탁아소와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더 길다.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경우처럼 탁아소나 직장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이 강화되니 아직도 방치되는 어린이의 문제가 많이 있다.

셋째, 남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기관에 따라 교사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북한의 유치원에서는 정해진 교과서와 교수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시간에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하루일과 중 교사 재량 시간으로 편성된 시간이 있기는 하나 그 시간도 교과서의 진도에 따라 아이들이 잘 습득하였는지를 검열하는 평가를 대비한 보충수업 시간으로 할애하여 진행되는 경우 많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도 검열을 실시하여 유아들이 배운 것을 직접 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시켜보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중구구이 경우도 유아교육을 맡는 분에 대한 대우가 낮아 문제가 발생한다.

전체적으로 남북한 유아교육기관은 개별활동, 소집단활동, 대집단활동, 유아주도 개별활동, 교사주도 집단활동의 다양한 교육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과 같이 중국의 경우에 교육의 최대 문제는 "중국에서는 도시지역에 흐르는 시간과 농촌지역에 흐르는 시간에 100여 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시와 농촌 간 심각한 교육 격차를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도시 부유층 가운데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해외로 유학 보내는 가정이 늘어나는 한편, 농촌에서 도시로 일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자녀를 도시로 데려 가더라도 공교육은 차치하고 민간의 농민공학교에조차 보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중국도 업적주의 원리에 의거해 엘리트를 선발하는 수단으로 이해되는 교육제도와 격차 없는 교육제도의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의무교육 도입이나 문맹률 저하, 고등교육 대중화와 우량한 인재 배출 등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이룩한 것은 많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아 교육도 남북한의 교육개혁과 같이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중국의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대체로 유교적 정치 전통과 사회주의 이념, 경제발전을 통한 현대화라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 교육의 기본원칙은 집체주의(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 내의 개인과 소집단의 이익관계에서는 집단의 이익이, 소집단과 대집단의 이익관계에서는 대집단의 이익이 중시되어야 하고, 또 계급 내부의 각 집단 간의 이익은 모두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전체 계급의 이익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중국 교육의 기본 바탕에는 오애교육, 즉 나라사랑(愛祖國), 인민사랑(愛人民), 노동사랑(愛勞動), 과학사랑(愛科學), 사회주의 사랑(愛社會主義)이 깔려 있다. 오애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사회 공중 교육과 이와 관련된 사회상식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좋은 도덕적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 속에서 중국 유아 교육은 이데올로기-정치사상 교육 강화와 더불어 경제적 현대화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교육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충남 아동 복지에 관한 연안과 방안” 에 대한 토론

성 태 규 (충남연구원)

우리의 현재 육아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지원(복지)정책의 수혜자의 만족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현금성 지원사업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금성 지원사업은 만족도는 높으나, 정책목표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높지 못한 경우가 있다. 현금지원사업의 만족은 사업추진 즉시 나타나지만, 효과는 장기간 지속되지 못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구조개선지원은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지만, 정책목표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주택임대료가 급상승할 때,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료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만족도는 높지만, 주택시장의 공급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주거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렵다.

수혜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만족을 위한 현금성지원사업을 가장 선호하지만, 그것이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경제적 재화는 희소성을 지니고 있다. 육아정책은 희소성이 있는 재화(예산)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배분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실업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청소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청년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은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 청소년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지원, 직업교육, 구직/구인간 미스매치 해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효과의 지속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지원사업은 선택과 예산배분의 문제이다. 이는 문제의 성격과 정책목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 효과를 내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겠지만, 해결책이 구조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육아정책의 목표는 저출산해소라고 생각한다. 저출산은 복합적·구조적 문제이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를 점검하고, 저출산해소를 위한 구조적 문제해결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독일의 육아정책에 대한 현황 소견이다. 대표적인 현금지원사업으로 부모수당(Elterngeld)와 자녀수당(Kindergeld)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소개와 시사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자녀수당(Kindergeld)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반 아동은 18세까지, 실업자의 자녀는 21세까지, 재학중인 자녀는 25세까지 아동복지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지급규모는 첫 번째/두 번째 자녀는 204유로(약 26만원)/월, 셋째 자녀는 210유로/월, 넷째 아이부터는 235유로/월의 금액이 지급된다. 2011년까지는 자녀소득이 8,004유로/년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없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수급자격조건으로서 소득조건이 폐지되었고, 교육과정이 수급자격조건이 되었다. 의무교육인 고등학교과정인 18세까지의 미성년 자녀에게는 무조건 지급되지만, 추후 수당지급에는 교육과정이 고려된다. 18세 이후에는 직업 훈련과 대학교를 진학을 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만료되고, 고용청이나 구직 센터 등을 통해 3개월마다 구직·혹은 교육훈련신청을 해야 성인자녀 수당이 지급된다.

육아수당(Erziehungsgeld)은 2007년부터 부모수당(Elterngeld)으로 대체되었다. 과거 육아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1~2년을 지급하되, 생후 2세까지는 300유로(약 39만원)/월 혹은 생후 1세까지 450유로(약58만원)/월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 소득대비 수령금액이 차별적으로 결정되었다. 생후 6개월까지는 부모합산소득 기준 3만 유로/연, 생후 7개월부터는 16,500유로/연 이하 소득의 부모만 전부를 수령할 수 있었다. 이후 2007년 부모수당으로 전환되어 주당 30시간을 노동하지 못하는 부모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그리고 자녀의 출생후 14개월까지 지원하되, 부모가 동시에 노동을 할 때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되고, 편부모시에는 소득에 따라 2~12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격의 자녀수당과는 달리, 육아수당은 육아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생업감소분에 대한 기회비용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자녀수당, 부모수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육아지원과 노동/일자리와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통일미래 만들기 : 남북한의 어린이를 위한 기념일과 아동인권】에 대한 토론

박 종 선 (백석대학교, 법학박사)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식민지 지배 하에서 선포한 방정환선생님의 ‘아동권리공약’을 토대로 남북한 어린이를 위한 기념일과 아동인권에 대한 백은영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매우 의미 있게 생각됩니다.

발표자께서 북한의 어린이 날 행사를 설명하시면서 아동을 위한 기념행사가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고자 북한의 아동과 관련된 법률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이념을 살펴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혁명위업의 계승자(제1조)로 어린이를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에 의하면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이 국가의 중요시책이며(제2조),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는데 있어,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법 제6조)을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꽃봉오리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게 키우는 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법 제22조), 어린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어려서부터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 것을 조국의 륭성발전과 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제29조). 나아가 국가는 어린이들이 과거를 잊지 않고 남조선인민들을 잊지 않으며 사회주의 제도와 휘황한 미래를 사랑하도록 교양하고 있습니다(제30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생산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7조), 가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홀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둘째, 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7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에 의한 아동은 16살까지이며, 이 법에서 아동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 나갈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후비대로(법 제2조)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에 대해 평등권을 보장하고 가정과 사법분야에서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권, 발전권 및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가질 권리, 국가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라든지(법 제27조)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의 권리(법 제28조)등 매우 상세하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시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아래의 아동은 어머니가 양육한다(법 제55조)고 규정하여 어린유아인 경우 어머니의 양육이 아동에게 유익함을 법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2011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55호)에 의하면, 교육은 학교전 교육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으로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1년이며, 교육을 받는 나이는 5살부터 16살까지로 무료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통교육법의 사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은 무료교육의무의 실시화,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교육교양사업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보통교육사업을 개선하고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역군으로 키워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정법을 살펴보았듯이 아동을 위한 법률체계가 매우 자세하고 꼼꼼하게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느끼는 북한의 현실과 법체계에 있어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사랑하는 내 아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체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동이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이고 아동이익이 최우선되는 원칙 하에서 아동의 생명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대하여 다시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당당한 권리를 찾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남한과 북한의 어린이들이 인권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평화통일만이 그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정책과 방안” 에 대한 토론

김 용 현 (충남연구원)

1. 사회적 환경변화

-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첫 0명대 진입’(0.98)으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1명 밑으로 추락했음
 - 저출산 트렌드는 비단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전세계적 흐름으로 충청남도의 ‘18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임
 - 충남도의 최근 5개년 합계 출산율은 전국(2018년 기준 충남 1.19, 전국 0.98)보다 높지만 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하락했음을 알 수 있음(‘17년 처음으로 출생아수가 40만명 아래로 떨어짐)
 - 특히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출생아 수가 감소하여 2040년까지 연평균 -0.31%의 출생자가 감소함
- ‘18년 6월,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저출산 극복이 충청남도 주요 핵심공약 사항으로 부상
 - 저출산 문제가 고령화 및 사회양극화와 더불어 충청남도가 전국을 선도해야 할 3대 분야로 부상
 - 충남도는 기존의 복지보전국에서 저출산보전복지실로 조직을 개편하였음
 - 충남도는 2017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2018-2022)을 수립한 바 있음

2. 저출산의 원인

-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맞닿아 있는 복합적인 증층 구조의 문제임
 -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의 총체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 먼저, 청년들에게 출구없는 실업문제, 높은 집값 때문에 결혼·출산을 꺼리고 비발적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음
 - 여성에게는 출산, 육아기에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없이는 일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부족함

- 저출산 문제에는 교육의 문제도 자녀의 초·중·고 학령기엔 높은 사교육비, 대학을 나와도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재 반복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출산·양육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키우는 것이 즐거움 보다 걱정이 앞서는 일이 됨

3. 정책제언

■ 기존 정책의 한계

- 저출산문제는 돈만으로, 단박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이고 다층적인 문제이나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저출산 대책'들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다음 선거를 위해, 혹은 자잘한 새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있음
 - 프랑스의 가족수당 정책, 스웨덴의 의무적인 부모 육직제도 등, 한두 가지라도 먹히는 정책보다는 해가 갈수록 정책의 가짓수는 늘지만 국민에게 체감되지 않음
- 만 누리과정, 양육수당, 초등돌봄을 감안하면 1년에 10조원 남짓이 그리 많은 예산이 아님
- 국회 예산정책처의 저출산 대책 평가보고서(2016)에 의하면 저출산 예산의 30% 가량이 실제 연관성이 적다고 지적함. 무엇이 저출산 예산인지 정리가 필요하고 정리된 저출산 대책들은 당사자들이 체감할 때까지 끝까지 보완이 필요

■ 개선방향

- 예산 재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복지예산 늘려야 함을 할 수 있고 새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보완이 더욱 중요함
- 새 정책보다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모니터링, 개선하는 것이 중요
- 구체적인 제도의 정착의 정착 방법을 오랫동안 다듬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해야 함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비율, 지역거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보, 경력단절여성 비율, 남녀육아휴직 사용률, 대체근무·유연근무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현황, 초등돌봄 충족율 등, 몇 가지 주요 지표에 주목하여 연도별 목표와 구체적인 예산 추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 보육정책관련 제언

- 양육수당이나 장기간의 육아휴직보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우선되어야 함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 보조인력 지원 강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를 제안
 - 보육의 질적수준은 교사나 보조인력의 처우와 불가분의 관계임
-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육서비스 정책이 요구됨
 - 여성고용률 증대에 한정하지 말고, 남녀 임금격차 완화 등 여성노동의 질과 여성들의 직업적 성취를 포괄해야 함

“남한 어린이 활동을 통일 통일미래 만들기”에 대한 토론

김 원 미 (선문대학교)

[1] 제목 <통일미래 만들기: 남북한의 어린이를 위한 기념일과 아동인권>

[2] 연구내용

본고는 아동권리공약 및 유엔아동권협약에 준거하여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재고하는 내용이다. ‘제네바 아동권리선언’(1924년)보다 1년 앞서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선언이 된 방정환과 어린이운동가들의 ‘아동권리공약’을 시작으로 1990년 남한과 북한이 서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교육권’ 존중과 이행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남한의 경우 조선시대의 유교적 전통아래 어린이들은 장유유서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대를 잇는 주변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방정환으로 인하여 성인 중심의 세계와 다른 아동의 세계를 인정하고 어른의 존재가 어린이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내용은 아동권리공약 3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지위 존중, 노동과 착취 금지, 교육과 여가,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제네바 선언’보다 아동권리를 더 포괄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아동의 인격적인 존중과 문화적인 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훨씬 더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첫째 조항은 아동의 인격적인 독립을 선언, 둘째 조항은 아동의 노동 금지셋째 조항은 문화적인 권리를 표방이다. 이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아동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놀 권리와 배울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아주 진보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이는 현재 계승되어 아동권리 보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북한의 경우1949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국제민주여성연맹 이사회의 영향으로 지정된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국제아동절’과 7세부터 13세까지의 소학교 취학 아동들의 날인 소년단 창립기념일(6월 6일)이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주는 입단식 기념일로 사실상 북한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지적한다.

이들 남북한의 행사는 명칭은 다르나 실행내용과 취지가 비슷하므로 공통성을 지닌 것으로 통일 미래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유지·계승해야할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북한 행사의 문제점 :

- 1) 북한의 기념식에 동원되는 아동의 엄청난 훈련강화로 인한 육체적 어려움 동반
- 2) 비교육적 행사내용으로 집단선동, 노동착취, 사상교육 등 아동권리 침해

[4] 질문내용

- 1) 본고는 한민족 지상과제인 통일에 대하여 그 대상을 아동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탈북민, 이산가족, 문화교류 등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데 비해, 미래의 주축이 될 아동으로 그 관점을 확대하면서, 우리 사회가 주목하여야할 대상의 폭을 넓힌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 2) 그렇다면 남북한 교류를 통한 아동의 동질감 확보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 지며, 그를 위한 구체적 기념일의 제정방안을 연구할 여지가 있는가?
- 3) 동질감 확보를 위해 어느 분야의 아동교류가 가장 합당하고 현실적이며, 이질적 사고의 폭을 좁히기 위한 대안은 있다고 생각되는가?
- 4) 남북한 아동교류재단과 같은 기구설립이 교류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남북한 어린이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토론

윤 필 희 (중부미래포럼)
사무국장

남북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은 남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속에서 북한의 취학전 교육이나 이후 교육에서 오늘 북한은 소년단 간부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당간부이면 그 자녀도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간부로 지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면 북한은 계급 사회로의 기틀이 확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방침이 있지만 북한은 남북한 유아교육기관의 하루일과를 살펴 볼 때도 그들의 사회주의적 경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남북한이 차이를 가름하는 것은 남북한의 교육이념이 하루일과의 교육내용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홍익인간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에 따라 운영되고,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사상과 주체사상의 이념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길을 우리 나라의 통일교육 관계자들이나 교육계 인사들이 찾아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은 각각의 교육이념이 교육내용 속에 은연중이나 노골적으로나 녹아 있는 점을 파악하고, 보다 통일 지향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과 북이 서로의 교육이념을 책이나 노래, 훈시, 교양 등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천적인 통일교육을 유아교육에서 찾아야 하는 것을 묻고 싶다. 전체적으로 남북한 유아교육기관의 하루일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탁아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 안에서의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남북한의 교육학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과정과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자 교수께서 언급해주셨으면 한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남북한의 이원화된 체제의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하루일과에서 총괄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전개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교육적 특징 중에서 잘 수용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20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20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20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20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